

#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4부 : 첫 대면

이준은 연희가 건넨 명경을 바라보며 제 얼굴을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이마의 상처가 아직은 보랏빛을 띠고 있었지만 붓기가 가라앉은 얼굴은 제법 준수해 보였다. 곱상한 외모를 콤플렉스로 여기던 이준에게는 꽤 만족스런 결과물이었다.

“선생님, 저 어때요?”

“네?!”

이준의 물음에 연희의 동공이 팽팽하게 벌어졌다. 전날 달여 먹인 탕약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 고민하는 눈치였다.

그녀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두 눈을 가늘게 접었다.

“...아주 보기 좋아요. 이젠 면포를 감지 않아도 되겠어요.”

이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몇 번이고 거울을 훑었다. 나르시즘따위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이 현세라는 고삐리의 얼굴은 정말... 제법 봐줄 만했다.

짙고 시원스레 뻗은 눈썹과 반듯한 이마. 강인해 보이는 눈매에 새까만 눈동자.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맘에 드는 것은 태양을 머금은 듯 구릿빛을 발하는 피부색이었다.

양반 댁 도령은 고사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혈벗고 힘든 농민의 아들이지 않은가. 이런 혜택은 받을 만한 가치는 충분했다.

얼굴까지 못났다면 펍 슬플 뻔했다.

“선생님, 사람이 엄청 모인 것 같은데,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을 꾸미는 겁니까?”

‘일을 꾸민다’는 어감이 약간 불편했는지, 연희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아무리 머리를 다쳤기로서니, 접주의 뜻까지 기억하지 못할 줄은 미처 몰랐다.

그녀는 몹시 진지한 표정으로 현세를 응시했다.

“동학사상에 대해 들어보았지요?”

“동학사상?”

이준은 어디서 들어본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다고 생각했다. 유교 사상과 비슷한 맥락인가? 그가 조선시대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대한민국 사극을 짹 잡고 있는 모 배우가 출연했던 ‘용의 흐르는 눈물’, ‘정도전의 도전’, ‘내가, 조선의 국모다’에 나오는 배경뿐이었다.

그나마 지금 시대와 비슷한 드라마를 꼽자면, ‘내가, 조선의 국모다’정도 되겠다. 이준은 모 배우의 사극발성과 곰돌이를 닮은 특유의 얼굴로 발산하는 카리스마를 꽤 좋아했다.

이준이 골똥한 표정을 지으며 눈알을 굴리자, 연희가 대신 대답해주었다.

“사람은 곧 하늘과 같고,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늘을 섬기는 것과 같다. 교조께서는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 모두가 같다고 하셨지요. 지금 저희 두령께서도 그 뜻을 이어 받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고려왕조 시리즈에 나오는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며 난을 일으켰던 바로 그 상황이구나! 이준은 자신의 풍부한 드라마 지식을 자축하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누가 난을 일으켰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대사가 하도 강렬해 이준의 뇌리 속에 박혀있던 차였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무장하고 집회를 열게 된 계기도 그것과 맥락이 같다는 소리였다. 한마디로 못살 것 같아서! 공무원이 썩어빠져서!

이준은 실로 한탄했다. 이쪽 동네나, 자신이 살던 저쪽 동네나 공무원이 문제였다.

저 역시 공무원의 신분이었지만 위에서부터 찍어 누르는 계급 구조부터 난립하는 각종 비리들까지, 보고 겪은 게 어디 한둘이던가.

심지어 안핵사로 왔다는 이용태라는 공무원은 전임 직원인 조씨보다 더 횡포가 심한 것 같았다.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자니 입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다.

이준은 약간 상기된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호미나 곡괭이로 싸울 수는 없지 않나요? 적어도 기관총은 있어야...”

이준은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다. 이런 시대에 기관총을 가진 농민이 있었다면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올랐겠지. 아니, 왕.

연희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현세를 훑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숫기가 없으시더니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 조총이라면 저희도 꽤 가지고 있

을 거예요. 고부 관아를 습격하면서 전부 챙겨 온 것으로 알아요.”

조총이라는 말에 이준의 목울대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는 희색을 띤 얼굴로 연희에게 되물었다.

“두령 형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직접 두령을 만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준은 ‘왜, 안될 건 뭐냐’는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였다. 그녀의 말대로 하늘아래 누구나 다 똑같은 처지라면 제가 두령을 만나지 못할 이유도 없을 터였다.

그 뜻을 알아차린 연희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를 따르시지요.”

이준은 그녀가 긴장하는 이유를 잘 알지 못했다. 이리 많은 농민들을 이끌 정도라면 아마도 엄청난 카리스마의 소유자인 것만은 확실해 보였다.

그렇다고 기죽을 이준이라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었다. 그는 애초부터 겁대 가리를 상실한 특공대의 미친놈이었다.

전술, 전략, EOD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소질을 보인데다가, 토르마저 제 파트너보다 이준을 더 좋아할 정도였다. 물론, ‘멤머쥬르’라는 보상이 있기는 했지만 이는 들켜봐야 징계이므로 그와 토르만의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이준은 일단 두령을 대면한 뒤 그의 꾀남을 파악해보고 농민군에 합세할지, 되바라진 놈을 데리고 툴지 판단하기로 결심했다. 우연히 들어온 몸일지라도 이놈을 죽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자신도 어찌될지 모르는 모험은 하지 않는 게 상책이었다.

앞서가던 연희가 멈춘 곳은 누런 짙단 대신 편평한 나무 널로 지붕을 올린 허름한 창고같은 곳이었다. 그녀는 목청을 가다듬고 나직이 외쳤다.

“흠흠, 두령 어른. 연희이옵니다. 현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준의 눈썹이 약간 올라갔다. 자신 앞에서는 그토록 존대하며 어른 대하듯 해주던 이가 두령 형님 집 앞에서는 어린 남동생 대하듯 하는 투였다. 어쩌면, 영혼이 뒤바뀌기 전에는 나름의 친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

“들어와라.”

이준은 저도 모르게 숨을 흡, 참았다.

실제 자신의 목소리도 꽤 낮은 저음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새어나오는 저 두령 형님의 목소리는 진짜! 말 그대로! 동굴 저음을 내고 있었다. 성악세계에 바리톤이 있다면 농민세계에서는 저 두령 형님의 목소리가 단연코 으뜸이리라.

안에 들어선 이준은 또 한 번 숨을 참아야 했다.

농민의 복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강건한 근골을 뽐내는 어깨. 한눈에 봐도 작은 체구의 소유자였지만 뿌리내린 나무처럼 단단한 몸의 균형이 딱 봐도 '강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팍팍 풍겼다.

두령의 형형히 빛나는 눈동자에 서린 핏발은 그간의 피로를 여실히 보여주는 듯했다. 그럼에도 가지런히 뺨은 눈매는 펴 시원한 인상을 풍겼다.

이준은 그 기세에 밀리지 않으려고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두령 형님.”

“몸은 좀 어떠? 진작 가 봐야 하는디, 화중이 쪽과 합을 맞추느라 짬이 나지 않았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에 이준은 웃음이 날 것 같았다. 저런 무서운 목소리를 덧씌운 정겨운 말투라니, 괴리감이 장난이 아니었다.

이준은 아무렴 어떠냐는 표정으로 고개를 가로저었다.

“괜찮습니다. 머리 조금 다친 걸 가지고요. 두령 형님 얼굴이나 보려고 찾아온 겁니다.”

두령이라 불리는 사내는 싱긋 미소지으며 광주리를 숙, 내밀었다.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더니, 과연 과거에 알던 현세와는 판판이었다.

나이를 점점 먹더니만 자신과 눈은커녕 말조차 잘 섞지 못하던 수줍은 아이가 아니었던가. 그런 현세가 용감하게 간자를 자처하고 나서더니, 지금은 어엿한 사내의 태를 갖추나가고 있었다.

“현중이 헌티 먹을 것을 양보하느라 잘 먹지도 못했는지? 들어라.”

이준은 광주리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감자와 고구마를 바라보았다. 아마, 농민들이 저 먹을 것을 추리고 추려서 두령에게 바친 거겠지. 모양이나 때깔만 봐도 대강 짐작이 갔다.

모르긴 몰라도 이곳 두령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는 아주 돈독한 것 같았다.

이준은 유독 붉은 빛깔을 띤 고구마를 집어 올렸다.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형님.”

껍질을 까려던 이준의 손길이 이내 멈추었다. 그는 생긱 웃고는 껍질 껌 한 입 배어 물었다. 이런 하찮은 껍질조차 아깝다고 먹으려던 종이 녀석이 생각 난 까닭이었다. 이준이 고구마를 우물거리는 동안 두령은 말없이 그를 지켜보았다. 싸움 깨나 할 것 같은 강건한 인상도 보면 볼수록 인자한 기색이 엿보였다.

“이틀 후면 2대 교주님(최시형)의 탄신일이여. 아마 동학군 사상 가장 큰 궤기대회가 될 것 같구먼. 너는 어쩔 셈이냐?”

고구마를 씹던 이준은 의아한 얼굴로 두령을 올려다보았다. 넌 어느 구역을 맡을 거냐고 물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거취 자체의 유무를 묻고 있지 않은가! 그 말인 즉, 죽을지도 모르는 집회시위에서 빠지고 싶으면 빠져도 좋다는 소리였다. 이준은 의심의 눈초리를 감추고 태연히 물었다.

“제게 도망치라는 겁니까? 왜요? 한 사람이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한 사람이 아쉽지! 취소, 취소여!’라는 대답이 나올까봐 이준은 속으로 약간 긴장했다. 장비도, 제가 좋아하는 총기도 없는 이런 곳에서 공무원이 파견하는 군대를 상대로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일이었다. 거기다 자신을 철썩같이 믿고 따르는 또 다른 토르를 챙길 의무가 있었다. 이미 현종에게 스며든 이준은 성가신 놈의 보모가 되기로 한 모양이었다. 두령은 의외로 담백하게 답을 내렸다.

“넌 이미 동학군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줬잖여. 한 번 뒤통수 한 목숨을 건졌는디, 다시 사지로 내몰 수는 없지 않겠어?”

지당하신 말씀. 이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남은 고구마를 마저 입에 넣었다. 어쩐지 목구멍이 막혀 우유라도 한 잔 마시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런 깡촌에 우유라니. 꿈도 컸다.

까맣게 그을린 저 두령의 뺨을 보고 있자니 삼킨 고구마가 스스로 팽창이라도 하듯 속이 갑갑해졌다.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냐? 넌 공무원이잖아, 임마. 시위대 편을 들어서 되겠어?’

그렇지만, 이용태라는 작자는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다.

전임자의 횡포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악덕 공무원은 마른 걸레 짜듯이 수탈의 수탈을 거듭했다. 이 소식은 현종을 통해서, 그리고 연희를 비롯한 농민들의 입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정보였다.

고기를 좋아하는 이준이 이런 구황작물만 받아먹는 이유도 그 작자의 악행과 일맥상통했다.

이준의 마음속에서 공무원 이준과 농민의 아들 현세가 엇치락뒤치락 다툼을 벌였다. 그들의 주장은 각기 일리가 있었다.

무기가 없는데 무슨 수로 싸워! 라든가, 조상님들을 도와줘서 덕을 쌓으면 원래 세 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따위의 온갖 잡생각이 자기주장을 펼쳤다.

두령은 그런 이준의 내적갈등을 십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다. 피불이라고는 어린 동생만 남아있으니, 그가 갈등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였다.

“넌 이미 할 만큼 했어야. 대가리도 깨진 마당에 그냥 관둬.”